

## KS C 5715 와 국규 9625 의 대안 (혹은 검용) 세벌식 자판 제안서

제안자 안마태

(한글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문자 체계를 말할 때에 우리 민족의 분단 이전부터 사용되어온 단어이고 국제적인 통용어, Hangeul 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

현재 남과 북의 조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용 한글 표준 자판(북에서는 국규 자판이라 부름)은 모두 영문 자판을 모방하여 만든 표준 자판으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 유산인 한글의 입력용 자판으로는 마땅하지 않다.

영어는 음소 문자이기 때문에 26 개의 음소를 차례대로 입력하고 바로 그대로 차례대로 출력하면 되지만, 한글은 음소문자일 뿐 아니라 음절 문자이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현대어 한글 음소 24 개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컴퓨터 안에서 반듯이 음절 문자로 조합을 해야 하고, 그 모아진 글자를 찾아서 출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 24 개 만으로는 자동 조합이 불가능하므로 북에서는 음소 문자를 몇개 더 합쳐서 31 개(자음 19 개와 모음 12 개)를 사용하고 있고 남에서는 33 개(자음 19 개와 모음 14 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음절 단위로 동시 입력을 하고 출력은 음소 단위로 내어 보내서 그려주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타자기 시대의 유물인 아날로그(Analog)식 입력 방법에만 의존하여 생각해 왔기에 자판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 논쟁의 주된 내용은 음소를 몇 개로 하느냐는 문제와 이들 자소를 자판 글쇠의 어느 위치에 놓느냐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져 1977 년도부터 미국에서 음절단위 입력방법 연구 개발을 시작하여 2003 년 경에 완료하였다. 안마태 소리 글판으로 이름 지어진 이 자판은 순차 입력, 모아치기 입력, 동시치기 입력이 모두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이 자판은 음소를 몇 개로 하느냐는 문제와 이들 음소를 어디에 놓느냐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글판에서는 모두 동시 입력이 가능하고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 글판기는 1999 년에 중국 연변대학의 젊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광 선생이 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입력기를 맨 먼저 개발하였고, 2003 년에 한국 과학 기술원 (KAIST)인공지능 연구실의 김진형 교수가 윈도우즈에서 사용할 수있도록 개발하여 주었고, 새나루라는 입력기에서도 사용하게 만들어 주었다. 또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입력기를 처음 윤예석 선생이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최근에는 박택순 선생이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 글판의 제안자인 안마태 신부는 최근에 동시 입력용 자판을 수천 개나 만들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조국에서 사용하도록 무료 배포를 하였던바 현재 주로 컴퓨터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에 사용되고 있는 KS C 5715(대한민국 표준 자판)와 국규 962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표준 자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서 하루속히 이의 시정이 요청되고 있다.

1. 왼손쪽에 자음, 오른손쪽에 모음을 놓아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원칙이 없어서 글쇠 자리 외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2. 음절 문자로 개발된 글씨를 음소 단위로 차례대로 입력하게 되므로 입력 속도가 대단히 느리다.
3. 음소단위로 차례대로 입력하여 컴퓨터 내부에서 음절단위 글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모니터상에 번개불 현상이 일어난다.
4. 자모 한자씩 입력하여 음절 단위로 모아지게 되므로 컴퓨터 내부에서 세벌식으로 모아야하는 불필요한 재프로그램을 요한다.
5. 국제 표준국어 등록된 한글의 코드 ( ISO/IEC 60646)에는 한문 다음으로 많은 공간인 12,106 개나 차지한다.
6. 1933년 이전에 사용되던 옛 자모 4자가 한자도 없다.
7. 자음과 받침을 모두 왼손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어 힘이 약한 왼손을 혹사하고 있다.
8. 왼손 자리에 모음 ㅏ자가 놓여있어서 한글을 처음 배우는 어린 아이들과 외국인에게 혼선을 일으키게 한다.
9.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글을 사람의 소리인 외국어도 표현을 못하게 해두었다.
10. 속기 기계가 있어야 빨리 입력이 가능하게 해두어서 우리말과 외국어의 속기 입력이 불가능하게 해두었다.
11. 같은 손가락 연타와 같은 손 연타가 많다.
12. 힘없는 새끼손가락을 사용해야하는 윗글쇠를 많이 누르게 해두었다.
13. 외국어의 바른 표기를 할 수 없게 해두어서 외국어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다.
14. 음성 표기용으로 만들어둔 과학적인 글씨체계를 영어식으로 자모 한자씩 입력하게 되므로 음성인식(혹은 조성), 문자인식(혹은 문자조성)등의 인공지능 분야와 유비쿼터스 시대의 빠른 적응을 방해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의 단점을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0여 회 이상의 실험과 연구로 많은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하고 한글의 과학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자판을 만들어 현재 조국에서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험과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글 전용 자판 (안마태 소리 글판)의 배열 그림은 다음과 같다.

## 자판배열



초성= 붉은색    중성= 파란색    종성=녹색

## 중국어 입력 자판 배열

1	2	3	4	5	6	7	8	9	0	-	=	\
/ 口	W 入	E ㄣ	R ㄹ	T ㅎ	" ㄱ	' ㅋ	“ 一	( ㄱ	< ㄷ	《 ,	! ?	
~ ㅏ	— ㅓ	… ㄷ	F ㄱ	G ㅇ	□ ㅏ	J ㅓ	, ㅣ	; ㄷ	: ㅓ	· ㅇ		
Z -	X □	C ㅓ	V □	B ㅇ	N ㄹ	M ㄴ	S ㅣ	¥ ㄷ	ㅓ			

중국어 입력기가 한글 입력기 자판과 다른 점은 맨 아랫줄이다. 중국어에서는 성조에 의해서 글의 뜻이 다르며 그리고 받침자 “ㅇ, ㄹ, ㄴ”은 중국어에는 우리글의 받침에 해당되는 자음이 운미(韻尾)로 취급되며 “ㄱ, ㅣ, ㄷ, ㅓ”는 중국어의 이중 모음의 둘째 모음이 우리글의 받침으로 해당되도록 해두었다. 그러므로 자판의 맨 아랫줄의 왼쪽에는 성조부호와 받침자 “ㅇ”을 배열하였고 오른쪽에는 받침자 “ㄹ, ㄴ”과 “ㄱ, ㅣ, ㄷ, ㅓ”를 배열하였는데 “ㄱ”은 맨 밑줄의 “ㄹ, ㄴ”를 동시 입력한다. 그 외에 중국어 입력에서의 필요로 흔히 쓰이는 부호들을 추가해 두었다.

성모(聲母)는 漢語字音(音節) 첫 音素이다. 대부분이 자음(輔音)이 充任한다.

일부분 자음은 직접 韻母로 시작되는 零聲母도 있다. 예: 安(an)

韻母는 주로 元音(母音)으로 구성되었다.

復韻은: 韻頭+ 韻腹+ 韻尾

香 xiāng 은 i + ā + ng

음절(音節)은 한개 혹은 몇개의 音素로 조성된 語音단위이다.

즉 자음(子音)輔音, 모음(母音)元音과 받침(后翼)輔音韻尾로 組成되었다.

한글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자음은 발성 기관 5 개의 모양을 따랐고 소리의 강약에 따라 가로 선을 더하여 된소리를 만들고, 거기에다 점을 더하여서 거센 소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상징기호와 이를 음과 양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러므로 자음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글쇠는 7 개면 되고 모음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글쇠는 5 개면 된다. 이를 합치면 12 개의 자리만 있으면 한글은 충분히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글씨 체계이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알맞는 글자 체계이다.

하지만 한글은 첫소리 자음과 끝소리(받침)를 사용할때에는 글자 모양은 같지만 소리값(음가)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듯이 따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ㅇ”의 첫소리 자음은 소리값이 없고(“아”자의 경우 “ㅇ”의 소리값은 없고, 모음 “ㅏ”의 소리값만 있다), “ㅇ”이 다른 자음과 함께 사용될 때에는 함께 사용하는 자음의 소리 값을 낮추어 주는 역할만 한다. 예를 들면

“ㄴ”과 “ㅇ”을 겹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리값이 영어의 “V”자 발음과 같아지고 마지막 소리인 받침으로 쓰일 때는 “응” 소리를 내는데 영어의 “ng” 발음과 같다.

안마태 소리 글판에서는 첫소리 자음과 받침을 따로 구분해 두었기에 이런 소리 값의 혼돈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음이나 모음을 동시에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소리(외국어를 포함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소리 마디글 (음절 문자, Syllables)을 동시에 입력 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컴퓨터 입력용 표준 영문 자판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닿기 쉬운 세 줄의 글쇠에는 33 개의 글쇠만 있기에 안마태 소리 글판에서는 윗 두줄의 글쇠 자리의 왼쪽에는 자음 10 개를 두었고 오른쪽 윗 두줄에는 모음 글쇠 10 개를, 그리고 맨 아랫줄 10 개에는 받침자 10 개를 두었다.

2 별식 표준 자판(혹은 국규자판)에는 있지만 안마태 글판에는 없는 글자 중에 자음과 받침자의 거센 소리 글자(ㄷ, ㅌ, ㅊ, ㅍ)는 기본자 ㄱ, ㄴ, ㄷ, ㅌ와 ㅎ을 함께 눌러주면 되고, 된소리 글자 ㄲ, ㄸ, ㅆ, ㅉ, ㅃ는 2 별식 자판에서는 윗글쇠를 누르지만 여기서도 ㄱ, ㄴ, ㄷ, ㅌ의 바로 오른쪽 글쇠를 눌러 주면 된다. 그리고 모음 ㅑ, ㅕ, ㅗ, ㅛ는 ㄱ, ㄴ, ㄷ, ㅌ와 ㅣ를 동시에 눌러주면 된다. 그래서 입력 속도가 2 별식 보다 두 배에서 세 배정도 빨라진다.

이런 원리로 손전화기에도 3 별식으로 표준을 정하고 모아쓰기 원칙을 정하면 입력 속도도 빨라지고 세계의 모든 글을 빠른 속도로 입력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원리를 적용하여 만들어진 중국어 입력기( 안마태 정음 입력기)가 개발되었다. 이 입력기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병음법 입력기 보다 열 배나 입력 속도가 빠르며, 전문 타자수만 사용하는 오피법 입력기보다도 서너 배나 입력 속도가 빠르다. 중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게된 이 입력기 개발로 한글의 과학성이 증명되었다. 곧 이어서 영어와 일본어 입력기도 개발될 예정이며 이것은 현재의 입력기보다 약 두 배정도 입력 속도가 빨라져 속키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